

수석합격기  
[2012년 행시 재경직 수석합격]

## 평범한 일상속에서의 수험생활



최 범 석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년 재학 중
- 2012년(제56회) 행시 재경직 수석합격

### I. 들어가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의 환희와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진정되었지만, 긴 고시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고시생활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는 합격수기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도 큰 영광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 수험생활이나 공부방법은 각자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역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며 단순히 참고하시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나가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II. 수험생활

#### 1. 2009년 8월~2009년 12월

학창시절 내내 공익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군 생활 하면서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군 전역 이후 페루에서 UNESCO 주관 봉사활동을 하며 행정고시를 보기로 확실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페루에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우선 학교수업을 들으며 경제학에 대한 감을 익혔습니다. 성백남 교수님의 미시경제학과 유병삼 교수님의 거시경제학을 들었는데 둘 다 명강의로 유명한

수업입니다. 동시에 틈틈이 행정법 기본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들었습니다. 비법 학도로서 법적 개념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법 강의를 듣느라 매우 고생했었습니다. 군 전역 후 첫 학기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공부하는데 많이 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 2. 2009년 12월~2010년 2월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1차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간 채고 언, 자, 상 07년 기출을 풀어봤을 때 언어가 75점, 자료가 50점대 상황이 40점대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때부터 불안해져서 부랴부랴 주변에 공부 중인 친구와 선배에게 전화해서 공부법을 물어봤었습니다. 밑에 공부방법에서 자세히 쓰겠지만 저는 PSAT의 경우 철저하게 기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2010년에는 기출 분석 이외에 학교 중도에서 스터디를 조직하여 모강도 영역별로 10회 이상씩 풀어 보았습니다. 기출 중심 공부법이 저와 잘 맞았는지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1차 시험치고 다음날 바로 신림에 집을 구하러 갔습니다.

## 3. 2010년 2월~2010년 6월

저는 처음에 무조건 단기간에 이 시험을 끝내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2010년의 경우 2013년과 비슷하게 2월 초에 1차 시험을 봤기 때문에 1차와 2차 시험 사이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었습니다. 초시생인 저로서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경제학 3순환이 시

작되기 전에 국제경제학 예비순환을 인터넷 강의로 들었습니다. 이미 합격한 선배가 국제경제학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국제경제학 강의를 빠르게 들은 후 경제학 3순환을 수강했습니다.

3순환을 들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빠빠한 스케줄로 진행됩니다. 매일 복습조차 벅찬 진도와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기본강의와 1순환, 2순환을 듣지 않은 저에게는 대단히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는 행정법 3순환 기간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기본강의를 듣기는 했지만 바로 3순환으로 뛰어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3순환을 따라가서 단기합격을 이루어내겠다는 생각에 매일 끼니를 거르거나 샌드위치로 매우면서 밀어붙였고 결국 탈이 나서 행정법 3순환이 끝나갈 즈음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는데 병원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스트레스 증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주일을 아프다 보니 단기간에 끝내겠다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부모님도 마음을 편히 먹으라고 하셔서 조금은 긴장을 풀고 행정학 3순환을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박경효 교수님께서 처음 3순환을 개강하셨을 때인데 첫 강의 쉬는 시간에 교수님께 행정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강의를 들어도 괜찮은지 여쭙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 다시금 공부에 대한

의지에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재경 직렬 학생들은 보통 행정학을 싫어하는데(저와 친한 형은 심지어 행정학 3순환 기간만 되면 아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행정학과 공합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매일매일 배운 부분을 서브로 만들면서 답안에 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재정학 3순환 기간에는 재정학 1순환을, 국제경제학 3순환 기간에는 국제경제학 1순환을 인터넷 강의로 들으며 내용을 익혀 나갔습니다. 3순환을 따라갈 자신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3순환이 끝날 즈음부터는 자율 답안 스테디를 모아서 연습했습니다. 행정학의 경우만 4순환을 들었고 나머지 과목은 듣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초시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컷보다 평균 5점가량 낮은 점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재정학의 경우 과락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 4. 2010년 7월~2011년 6월

2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교 고시반 입실시험을 보았습니다. 초시임에도 열심히 공부했던 덕에 고시반 입실 시험에 합격했고 고시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반은 실력 있는 사람과의 스테디, 자리제공, 서고 내 도서이용 등 실질적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큰 도움은 비슷한 처지를 겪는 사람 간의 공감과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해도 고시생의 애환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몇 없어서 마음속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시생 사람들과는 이런 부분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2010년 2학기에는 학교에 다녔는데 전공 수업과 조모임이 너무 많아서 고시 공부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기말고사 이후 학교에서 고시반 사람들과 1차 공부를 했고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차 공부의 경우 고시반 사람들과 스테디를 하면서 경제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3순환을 따라갔습니다. 첫해에 비해서는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학원 모의고사 성적이 썩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고시반 선배들과 스테디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 답안에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 공부방법이나 실력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 5. 2011년 7월~2011년 12월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2차 시험 이후 합격에 대한 미련이 더 적었습니다. 고시반 선배들과 스테디를 하면서 부족한 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단기 합격만 노리고 무리해서 학원 진도를 따라가다 보니 기본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끝나고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진 후 류준세 선생님의 행정법 1순환과 김진욱 선생님의 거시경제학 1순환을 들으며 기본을 다졌습니다. 학교 수업도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각론, 김정식 교수님의 국제 금융론 등과 같은 고시과목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당시의 공부가 실력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결과에 조금해하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 차분히 공부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6. 2012년 1월~2012년 6월

2012년의 경우 기말고사가 끝나고 바로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1차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기도 했고, 2차 공부를 시작할 때 신입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기도 했습니다. 1차 공부의 경우 올해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출 위주로 분석하였고, 모강의 경우 거의 풀지 않았습니다. 모강 보다 오히려 입시 기출을 제대로 분석해보려고 했습니다. 또한, 1차 공부와 동시에 행정법과 재정학 같은 2차 공부도 조금씩 병행했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올해는 학원 강의를 하나도 듣지 않는 대신 혼자만의 공부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2개 조직하여 답안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올해는 입법고시 1차도 봤었는데 운 좋게 합격하여 입법고시 2차를 볼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입법고시를 보면 입법고시 일정에 맞춰 전과목을 미리 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고시에 대비한 일정이 꼬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입법고시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시험을 약 한 달 앞두고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신입에서 집으로 공부장소를 옮겼습니다. 덕분에 마지막 한 달은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도 먹을 수 있었고, 가족과 대화하며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이후에 얼추 답을 맞춰보고 잘못 본 것 같아서 내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부모님과 상의하여 2학기 휴학 신청을 하였습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학교 중도에서 답안 스터디를 구해 공부하기도 했지만,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착잡해지는 마음을 감추기는 힘들었습니다. 발표 날 당일에도 저녁 6시에 결과가 두려워 전화를 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불합격하게 된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의지를 다지는 자는 생각에 신입으로 가서 7시 반이 넘어서야 컴퓨터로 겨우 확인했습니다. 예상도 하지 못했던 제 이름을 명단에서 확인하고 명한 기분으로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야 합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III. 공부방법

#### 1. 제1차시험

##### (1) 제1차 공부 전반

PAST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강을 통해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모강과 기출간의 문제의 질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행시 기출은 한 번도 해답지를 보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도 '이 문제를 처음 보았더라도 2분 20초 안에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했던 걸까'를 생각하며 끝까지 혼자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출 중심의 공부법은 저에게는 굉장히 잘 맞았고 덕분에 2010년, 2011

년, 2012년 모두 1차는 넉넉한 점수로 붙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체계를 잡아놓았던 덕분에 2011년과 2012년에는 편하게 1차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처음 풀어보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는 게 낫다는 말도 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도 처음 풀었을 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연습으로 1차 점수를 많이 올린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의 경우 다양한 풀이방법을 공유할 수 있고 각자의 강점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한 회차 분량의 PSAT을 풀기 때문에 자신을 다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터디와 잘 맞지 않거나 굳이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잘 공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2) 언어논리

3개의 영역 중 기출 분석이 가장 효과적인 과목이었습니다. 언어논리의 경우 유형별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형, 추론형, 논리형, 퀴즈형 등의 문제별로 접근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확인형 문제의 경우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주로 인과관계를 꼬아서 보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중심내용을 묻는 문제의 경우는 지엽적

내용을 중심내용처럼 부풀린 보기가 매력적 오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석과정을 통해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감이 잡혔고 모강을 통해 이러한 접근법을 연습했습니다.

#### (3) 자료해석

기본적인 계산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계산능력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자료의 해석'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한 영역이므로, 일단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려는 자료인지를 빠른 시간(10초 내)동안 파악하고 그 이후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산 등과 같은 기본적 스킬은 신현 선생님의 기본서를 통해 연습했습니다. 자료해석의 경우도 기출 분석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계산을 기출에서 요구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함정을 파는지 등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기출을 분석했습니다.

####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의 경우 유형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수험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영역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한 판단을 해보라'는 것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판단은 한 번도 해답을 보지 않고 혼자 끙끙대며 정답과 해결과정을 찾았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공부방법이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든 결국 2~3분 안에는 풀게끔 나온다는 자신감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버릴 문제와 풀어야 할 문제를 구분

하는 연습도 되었습니다. 상황판단은 버릴 문제를 과감히 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봤을 때 5분이 넘게 걸릴지 3분 안에 풀 수 있을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파악하여 전자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2. 제2차시험

### (1) 제2차시험 공부 전반

2차 시험의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스투워치로 공부시간을 재곤 했는데 1년 차 때 많이 할 때는 순 공부시간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재면 자신도 모르게 낭비하는 자투리 시간을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이후에는 공부시간에 지나치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 자체에 매몰되어 스트레스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차의 경우 결국에는 답안에 현출되는 내용이 중요하므로 답안 연습이 중요합니다. 학원 순환을 들으시는 경우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모두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 수업을 듣다 보면 각종 핑계를 대고 모의고사를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됩니다. 스터디를 통한 답안 연습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1년 차 때를 제외하면 3월~6월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답안스터디를 했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해당 과목을 50점 분량으로 답안을 썼고 6월이 되면

100점 분량으로 늘려서 답안 연습을 했습니다.

2차 점수의 경우 컷 근처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컷 점수에서 2~3점만 멀어져도 엄청나게 등수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작년엔 컷보다 평균 3점 가량 낮은 점수였음에도 올해 10점 이상 올라 합격하였습니다. 노력하신다면 실력은 금방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경제학

경제학의 경우 최근 어려운 계산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 거시 모두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미시 경제학의 경우 이준구 교수님의 교과서(이하에서 교과서 저자를 밝힐 때 교수님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미시경제학은 계산 문제 풀이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기출 경향 상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 이론을 제대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시 경제학의 경우 국제 금융 분야에서 꼭 한 문제 정도는 시사이슈와 관련하여 물어보므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교과서는 미시의 경우 이준구 저, 거시의 경우 정운찬, 김영식 저를 주로 보았고 필요할 때 김경수, 박대근 저, 맨큐 저 등을 통해 없는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학원 강의는 김진욱 선생님의 3순환과 거시 경제학 1순환을 들었습니다. 거시경제학의 경우 교과서로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막판에는 워크북의 zip에 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의 zip도 반복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 수업의 경우 박기영 교수님의 화폐금융론이 까다로운 금융 부분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3) 행정법

저는 행정법의 경우 강사를 많이 바꿨습니다. 첫째에는 김기홍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기본강의, 3순환). 행정법 마인드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치는 대로 쟁점정리를 암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외우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때 해놓은 암기가 그 이후 행정법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기홍 선생님 강의의 경우 답안에 쓸 내용만 압축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정선균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3순환). 제가 들었을 때는 모든 내용을 보기보다는 수험생들이 자주 헛갈리고 틀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해 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논점에서 다수설 위주로 설명하되 소수설의 입장도 정리해주셔서 다양한 관점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학원에서 질문도 받아주시는데 저도 거의 안 빠지고 가서 질문하곤 했습니다. 꼼꼼하게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류준세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1순환). 류준세 선생님의 강의는 양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공부하기 벅찬 감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정리를 해놓으면 고득점 받는데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워크북의 장점은 판례 전문이 실려 있어서 판례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좋다는 점, 각 개념의 정의뿐 아니라 그것이 행정법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설명되어 있어 논리성 측면에서 더 치밀하다는 점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막판에는 워크북으로만 정리하였습니다. 답안에 판례를 자세히 쓰고 각 개념의 행정법적 의미를 밝혔던 것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경우 처음에는 홍정선 저로 공부하였고 류준세 선생님 강의를 들면서 박균성 저로 바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균성 저가 읽기 더 편했지만, 행정법 교과서의 경우는 개인 취향을 많이 타는 편이므로 각자가 읽기 편한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4) 행정학

제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과목은 몰라도 행정학만큼은 서브를 준비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로 정리하기에는 지나치게 반대하기 때문에 답안에 쓸 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첫해와 둘째 해에는 박경효 교수님의 3순환을 들으면서 재미있는 행정학과 한국 행정학을 참고하여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에는 강의는 듣지 않고 한국 행정학회와 정책학회에서 약 100여 편의 논문을 내려받아 읽으면서 이를 서브에 추가, 보충했습니다. 논문 보는 것은 작년에 행정학에서 고득점 하신 선배분이 추천해주신 방법인데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논문들을 읽어 보면 저희가 배운 행정학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생각보다 흥미로운 구석이 많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학문적 연륜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서론과 결론의 경우 좋은 부분은 체크해놓고 답안 연습 때 써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논문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기 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스캔하면서 중요해 보이는 부분만 자세히 읽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하연섭 교수님의 재무행정 수업을 들었는데, 그 덕분에 다른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는 재무행정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5) 재정학

3번의 2차 시험 경험 중 유일하게 과락을 경험했던 것이 재정학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어려운 계산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재정학에서는 매년 까다로운 계산문제가 나오는 것이 최근 경향 같습니다. 저 역시 2010년에 계산문제를 틀린 것이 과락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계산문제를 완벽히 풀지는 못했고 그래서 점수도 낮은 편이라 공부 방법을 밝히기 민망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준구 저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산문제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저는 재정학 모의고사의 zip과 순환문제들을 구해서 풀어보면서 이에 대비했습니다. 올해는 그루버 저 재정학을 보면서 이준구 저에 없는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그루버 저에는 재미있는 실증연구 및 미국 정책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증연구의 경우 포켓 카드에 적어놓고 식사 후 또는 집에 가는 길에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암기했습니다.

#### (6) 국제경제학

선택과목은 보통 국제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많이 선택합니다. 국제경제학의 경우 경제학과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계학에 비해 점수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학은 일단 잘 봤을 때 40점을 넘나드는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잘 못쓰면 과락의 위험이 크고 수학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선택과목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경제학을 택했는데, 각종 국제적인 시사 이슈를 파악하기에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수학적인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이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제경제학이 결코 통계학보다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 체계가 복잡하므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국제 무역론의 경우 제한된 지면에 그래프와 수식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므로 답안 연습을 자주 해야 합니다. 김진옥 선생님의 강의 자료가 압축적인 표현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제 금융론의 경우 시사 이슈와 연결 지어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가끔 공부가 안되면 한국은행의 해외 경제 포커스나 보도 자료를 보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공부보다는 현실과 판



런된 보고서를 읽으면 좀 더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황중휴 선생님의 예비순환과 1순환, 김진욱 선생님의 1순환과 3순환을 들었고 주 교재는 김인준, 이영섭 저 국제경제론과 국제경제학 모의고사의 zip이었습니다.

### 3. 제3차시험-면접시험

2차 합격의 기쁨도 잠시, 3차 면접 준비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2차 발표가 나게 되면 행사사랑 카페를 중심으로 스터디원 모집 글이 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합격자가 스터디를 통해 면접을 준비합니다. 또한, 각 스터디가 조인트 스터디를 통해 만나기 때문에 3차 면접 전에 모든 2차 합격자의 얼굴을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준비는 크게 시사 이슈 정리와 자신의 과거 경험 정리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써온 덕분에 과거 경험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할 때는 고시 공부 경험 외의 경험이 대단히 큰 도움을 주므로 시간이 나신다면 봉사활동이나 그 밖의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시사 이슈 정리는 약 한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미리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IV. 기 타

### 1. 스트레스 해소

고시 공부는 스트레스와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부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체되어 있다는 불안감,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매우 큼니다. 따라서 각자 나름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해소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할 때 즐거워야 하고, 동시에 중독되지 않을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휴식활동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시라고 해도 쉴 때 제대로 쉬어주지 않으면 공부의 효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과감히 휴식을 취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는 1년 차와 2년 차 때 고시생이라면 응당 스트레스를 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부가 잘 안될 때도 억지로 독서실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그게 1, 2년 차 때 건강이 크게 상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차인 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춤 동아리 활동을 계속했던 경험을 살려 3월에는 관악 청소년회관에서 방송댄스 수업을 들었습니다. 춤 자체가 운동도 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밥 먹고 소화가 안 되면 9동 위쪽의 고시공원까지 걸어 올라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만화책을 빌려 본다거나 PC방에 가서 쇼 프로그램 등을 보기도 했습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즈음에 몸이 지칠 때

는 아예 12시 정도까지 늦잠을 자서 체력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늦잠을 잤다고 자괴감에 빠지기보다는 마음을 편히 먹고 점심 공부에 집중하시면 긍정적으로 공부에 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2. 인간관계

고시공부를 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좁아지게 됩니다. 주로 연락하는 사람도 고시생이 되고, 다른 친구들과과는 연락이 뜸하게 됩니다. 저도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제가 잊히는 기분이 들어서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고 나서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주던 지인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인사를 받다 보니 의미 없던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시생 분들이 계시는데, 결국 이러한 행동은 모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힘든 공부 하는 사람들로서 동료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는다면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힘든 때는 같이 공부하던 친구, 선, 후배들과 대화하며 위로를 받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 3. 건강

공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파이팅 넘치게 10시간이 넘게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약해져 오래 공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체력적으로 약하시다면 매일 약간의 시간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아까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운동을 통해 체력도 기르고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이 아프면 병을 키우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가장 소중한 건 수험생 본인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는 마인드로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V. 나가면서

수험기간 동안 자주 들었던 노래가 몇 개 있습니다. 조승우의 '지금 이 순간', 임재범의 '여러분', 그리고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대로'입니다. 처음에는 단기간에 끝내고자 승리를 부르짖는 조승우씨의 노래를 자주 들었는데, 공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위로를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길 걸을 때 벗이 되리'던 임재범씨의 목소리와 '마음먹은대로, 생각한대로, 말하는대로 될수 있다'는 유재석, 이적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독서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나를 다독였던 기억이 납니다. 힘든 길을 걷는 수험생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무안하지만, 이 지면을 빌어 고마웠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힘든 공부를 바라보며 더 힘드셨을, 그럼에도 묵묵히 응원해주신 부모님, 제가 힘들 때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스트레스를 날려준 일등공신 동생 범진이에게 다시 한 번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멘토이자 지음 정현이, 고시 공부하는 내내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원석이형, 헛소리 하나까지도 고마운 내 친구 승원이, 3년간 내 여자 친구라도 된 양 늘 전화받아준 길

명이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늘 응원해주고 다독여준 친척분들, 명덕 외고 중국어과 7기 친구들, JazzFeel 선배, 후배, 동기 여러분, 경현재 선후배 분들, 제 실력 향상에 도움 주셨던 모든 스터디원 분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